

질병과 역사의 질곡에서 고통 받는 한국인의 몸과 마음을 의학과 종교로 위무한 의학교 제1회 졸업생 김교준

황 상 익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Gyo-June Kim, the first graduate from Uihakgyo, who consoled the body and mind of afflicted Koreans through medicine and religion

Sang Ik Hwang, MD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약력:** 1884년 4월 30일 한성(漢城) 중서(中署) 박동(礪洞)의 자택(오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자리)에서 공조판서를 지낸 김창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남. 어머니는 한산 이씨
- 1899년 8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의 제1회 입학생으로 선발됨.
- 1900년 8월 일본의 도쿄 지케이 의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의학교 교관(교수)이 된 김익남을 만나 제자가 됨. 이들은 이때부터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자로 지냄.
- 1902년 7월 5일 의학교를 제1회로 우등졸업하고 내부대신이 발급한 의술개업 면허장을 받아 의사가 됨. 함께 졸업하고 면허장을 받아 국내 최초의 근대식 면허의사가 된 19명 중 최연소
- 1903년 2월 21일 의학교 졸업생 중 최초로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 받음.
- 1904년 9월 23일 의학교 교관직을 사임하고 입대하여 육군 2등군 의(중위)로 임관. 이때부터 의무국 의무과와 군무국 위생과에서 스승 김익남을 보필하여 근무.
- 1909년 7월 30일 3등군 의장(소령)으로 승진하고 다음날 예비역으로 전역. 이후 만형 김교헌을 따라 대종교(大倥敎)에 귀의하여 1911년 지교(知敎), 1914년 상교(尙敎)가 됨.
- 1917년 나철(羅喆, 1863-1916)에 이어 대종교 교주가 된 김교헌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대종교 포교 및 독립운동과 함께 의료활동을 벌임.
- 1923년 조선으로 돌아와 “내과 전문 만제의원(萬濟醫院)”을 개업하여 만년에 이르기까지 환자 진료를 하는 한편 대종교 활동에 종사하여 1938년 정교(正敎), 1946년 도사교위리(都司敎委理), 1958년 사교(司敎)를 거쳐, 1962년 제5대 총전교(總典敎, 교주)에 취임.
- 1965년 3월 28일 서울 청량리 자택(현재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근처)에서 별세(대종교 용어로 朝天)

Received: November 21, 2018 Accepted: November 23, 2018

Corresponding author: Sang Ik Hwang
E-mail: hwangsi@snu.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김교준(金敎準, 1884-1965)은 1884년 4월 30일 공조판서와 사헌부 대사헌 등을 역임한 김창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김정집도 예조판서를 지내는 등 경주 김씨인 김교준 집안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명문거족이었다. 갑오·을미 개혁기에 총리대신을 지낸 김홍집도 가까운 집안사람이었다. 김교준 가문은 재산도 많아 박동의 대저택(오

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자리) 외에 말죽거리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885년 4월 14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되었다. 일각에서는 그 전 해에 일어난 갑신정변 때, 개화파 자객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민씨 척족세력의 핵심인물 민영익을 미국인 의사 알렌이 치료한 일 때문에 느닷없이 제중원이 세워진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국왕 고종과 정부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급진개화파의 쿠데타 실패 이후 매우 반동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중원이 원래 계획대로 세워진 것을 보면 근대의료로 도입하려는 집권층의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병원 제중원을 세운 데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 이 가운데 백성들에게 근대서양의술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근대식 의사들을 배출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근대医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 양성이 필요했지만 아쉽게도 그 일은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1896년 초 김홍집 내각은 그해 예산에 의학교의 설립비와 운영비를 책정하는 등 바야흐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눈앞에 두었지만 2월 11일 아관파천 사건이 발발함으로써 계획은 무산되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김으로서 왕권과 함께 나라의 품격까지 스스로 훼손하는 우행을 저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김홍집 총리 등 대신들을 살해하라는 지령까지 내렸다. 결국 김홍집의 피살과 함께 내각은 붕괴되었고 의학교 설립도 수포로 돌아갔다.

그 뒤로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18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의학교 법)가 제정, 반포되었다. 그리고 그 관제에 의거해서 학부령(學部令) 《의학교 규칙》이 공포되었고, 공개적인 학생 선발(우리나라 근대교육역사상 최초)과 개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의학교가 설립된 데에는 지식영과 같은 근대지향적 지식인들의 노력과 더불어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표출된 근대의료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요컨대 의학교는 1870년대 우두술의 보급으로 시작된 자주적인 의료 근

대화의 중요한 결실인 셈이다.

의학교의 교사는 아관파천 때 참살당한 김홍집의 몰수된 자택(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자리)으로 정해졌다.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 제중원이 갑신정변 때 개화파의 리더로 망명을 마다하고 의연히 죽음을 맞았던 홍영식의 몰수된 집(지금 헌법재판소 북쪽 뜰)에 세워졌던 것과 짝을 이루는 한국 근대사와 한국근대의학사의 극적인 장면이다. 홍영식과 김홍집은 자신들의 염원인 근대의료 도입의 꿈을 죽어서 이룬 셈이었다.

김교준은 이러한 내력을 가진 의학교에 제1회로 입학했다. 불과 열다섯 살 때였다. 그리고 1902년 7월 5일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우등 졸업장과 의술개업 면허장을 받았다. 이 의학교 제1회 졸업생 19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출된 근대식 면허의사이다. 이들은 뒤늦게 완공된 부속병원에서 8월부터 다섯 달 가량 임상실습 과정을 거친 뒤 1903년 1월 9일 정부 고관들과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예식을 가졌다. 그리고 김교준은 한 달 남짓 뒤인 2월 21일 만 열여덟 살에 의학교 교관(교수)으로 임명을 받았다. 김교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정규 의학교를 졸업하여 최초로 근대식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모교의 교수가 되어 대부분 자신보다 몇 살 위인 학생들을 가르쳤다. 김교준 자신과 제자인 권태동의 회고에 따르면, 김교준은 생리학과 약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1904년 9월 23일, 김교준은 의학교 교관직을 사임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육군 2등 군의(중위)로 임명받았다. 김교준이 입대한 것은 노골화되는 일제 침략에 대비해서 군대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학교 시절부터 따르던 김익남(金益南, 1870-1937)을 보좌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 김익남은 정부의 파견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1899년 도쿄 지케이 의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사이자 최초의 의학 교수로, 김교준의 평생 스승이자 동반자였다. 김교준은 망국이 얼마 남지 않은 1909년에 퇴역할 때까지 줄곧 김익남의 곁을 지켰다(Figure 1). 김교준은 이 세상과 작별할 때까지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군의관을 퇴역한 뒤로는 만형 김교헌(金敎獻, 1868-1923)과 더불어 종교 활동에 더욱 큰 힘을 쏟았다.



Figure 1. Dr. Gyo-June Kim (right) and Dr. Ik-Nam Kim (left). This photo was taken on July 30, 1909, when Gyo-June Kim was promoted to the senior army surgeon (Major). The two met as teacher and student at Uihakgyo, the first modern medical school and became lifelong partners.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교준에게 열여섯 살 위인 김교현은 사실상 아버지 역할도 했다. 17세에 과거에 급제한 김교현은 예조참의, 규장각 부제학 등을 역임했다. 1898년에는 독립협회 대표위원으로 만민공동회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1906년 동래부사로 재직할 때는 통감부의 비호 아래

자행되던 일본인들의 경제 침략을 제지하다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김교현은 1909년 대종교가 재건된 때부터 교인이 되어 1916년에는 나철의 뒤를 이어 제2대 교주로 취임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7년 집안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했다. 김교현-김교준 집안은 이회영 집안과 더불어 이 시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표한다. 김교현의 영도 하에 대종교는 1919년 2월 ‘무오독립선언’을 주도하여 대중적 독립운동을 촉발했으며,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 등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김교준도 1917년 김교현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포교와 독립운동에 힘쓰는 한편,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벌였다. 만주 시절 김교준이 벌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별로 없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1923년 남아 있는 친족들을 돌보기 위해 조선에 돌아온 김교준은 ‘내과 전문 만제의원’을 개업하는 한편 조선 내의 대종교를 이끌며 만주지역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해방 뒤인 1962년 대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총전교(교주)가 되었다. 대종교 교주가 된 말년에도 비록 찾아오는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진료활동을 계속했다.

이렇듯 김교준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최초의 의사이면서 또한 대종교의 지도자이었으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역사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 인물이다.

ORCID

Sang Ik Hwang, <https://orcid.org/0000-0001-5895-2336>